무정 계속

85회까지 대등한 두 벌의 서사가 병존하면서 대립하기도 하고 교차되기도 하는 구성을 보여준다. 각 서사체의 구성 방식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정신활동에 불과한 상상이 사건의 층위까지 부상하며 인과관계를 잇는다) 형식의 상상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내면세계를 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의 시작(근대소설로의 지향) 🡪 30년대의 내면 소설, 염상섭의 고백체 소설

근대소설로의 진행: 상상이 원동력이 되어 사건이 진행되는 것. 상상을 했기 때문에 영채의 신분을 확인하러 갔고, 생에 유한성에 대한 인식이 이튿날 선형과 약혼함. 상상이 빠진 채 사건이 진행되면 매우 억지스러워져 버린다. 상상을 사건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서사를 끌어나가는 것 (구성적인 면에서 주목해 볼만함)

사건을 텍스트로 실현하는 것 > 담론Discoures. 사건은 질료이자 얼개와도 같은 것. 그것을 400페이지의 텍스트로 만드는 과정을 통칭 담론이라고 한다. 즉 담론 - 작품을 텍스트로 실현하는 언어의 작용들과 운용의 면에서도 영채와 형식의 이야기의 차이는 군데군데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담론을 더 일반적으로는 서술이라고 부르고, 더 자세히 하면 서술 행위 by 제라드 주네트)

서술의 기본적인 기능은 사건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통 이야기, 신화, 전설 등 거기서 서술의 기능은 벌어진 사건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 이상의 것을 담당하지 않는다. 전달의 역할 말고 다른 것이 없다. 🡪 단순 보고형 서술, 서사의 최저 수준을 구현

1. 단순 보고형 서술

영채의 이야기 : 서술시간과 서사 속의 시간이 아주 멀리 있다. ‘벌써 십유여 년 전이다.’ 이후에 서술하는 방식을 취하며, 사건들을 시간의 흐름대로 통시적으로 서술한다.

그러나 소설은 시간의 순차에 따라 사건을 배열하지 않는다. 이야기만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놀라움 등을 위해 처음에 오는 사건들을 감추기도 하는 것. 먼저 일어난 일을 숨기기도 하고. 단순히 줄거리나 내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려는 목적. 주네트에 의하면, 거의 모든 소설들은 통시적 시간순서를 지키지 않는다. 소설가는 모종의 이유나 필요 때문에 ABCD로 안 가고 CBAD로 간다. 담론은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무정의 전반부에서 영채의 이야기에서는 정말 통시적으로 사건이 배열된다. 박진사 집 망하고, 친척집에 맡겨지고… 영채는 미션의 수행자처럼 성실하게 사건들을 밟으면서 불행을 향해 나아간다. 거기서 영채의 내면은 전혀 주목되지 않는다. 그녀가 고생하는 사건들만 드러나고 있다. 갈등과 고민 이런 거 전혀 없고, 사건만을 수행하는 게임 속의 캐릭터 같은 존재. 이유만 생각하면 진짜 개연성 1도 없는 전개다. ‘너는 형식의 아내가 되어라’라는 아버지의 유언 때문에 영채의 고생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약속과 임무의 수행자처럼 영채는 형식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남성으로의 발견도 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을 찾아온다. 내면의 고민과 갈등, 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도 전혀 없이 고난 속에서 정해진 경로를 밟아가듯이 기계적으로. 그래서 신념이 곧은 인물처럼 비춰지지만, 그 신념이라는 것도 미약하다. 영채가 형식과 사적으로 약속을 한 것도 없다.

왜 형식을 영채가 찾아오는지 알아볼 길이 없다. 미미한 편린들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사적인 개연성 필연성 등이 사적으로 약하다는 것. 기생이 되면서까지 형식을 찾아오는 데 대한 추호의 고민도 없다. 개인적인 행복을 고려한다면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텍스트에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목적을 향해 가는 임무 수행자와 같은 영채. 내면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없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 영채에 관한 서술은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의 수준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않는다.
* 단순 보고형 사건 서술에서 인물은 사건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능적 존재로 제시된다.
* 영채는 사색하는 존재가 아닌 행동하는 존재로 등장한다.
* 영채의 내면이 서술되는 경우에도 그녀의 확고한 신념을 전달할 뿐이다.
* 신념을 재확인하는 정도를 넘어가지 않는다. 생각한다, 믿는다 등이 한 가지 일념과 관련되어 있을 뿐. 심리로서 생생하게 드러나려면 그 과정이 드러나야 하는데, 단순 보고하듯이 영채의 행적을 서술하는 영채의 서사에서는 정신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불행으로 추락할수록 더 강한 신념을 가지고, 회의나 불안 같은 그림자가 전혀 드리워지지 않는다.

장면이 거의 없다. 상당부분의 서술에서 장면이 극적이 재현되기보다는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런 고난을 당했다 정도로 가고 있다. 대화라는 것은 현재성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것인데, 대화도 거의 안 나온다. 나아도 인용 정도.

2) 극적 재현과 내면 묘사

: 서술자의 태도가 바뀐다. 영채와는 달리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보다는 사건을 그냥 장면으로써 보여준다.

* 형식의 경우 사건은 묘사를 통해 장면으로 재현되고 인물들 간의 대화는 장면 속에 현존한다.
* 담론은(서술은) 사건에 임재하며 사건과 더불어 수행된다. : 사건과 서술, 서사의 시간과 서술 행위의 시간이 일치한다.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진행을 따라간다. 장면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음. 지각의 초점화가 작중 안에 맺혀 있다(극적 재현이 일어나는 것). 영채의 경우에는 지각의 초점화가 작품 밖에 있으며, 우리의 감각기관도 작동하지 않고 그냥 단순 디에게시스로 쭉 이어짐.

대화가 장면 속에 현전한다 – 영채의 말이 방에서 말했는지, 길에서 말했는지 전혀 안 드러난다. 그냥 인용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형식의 경우에는 장면 속에 대화가 생생하게 제시된다. 형식 서사 같은 서술을 하려면 담론과 사건이 멀리 떨어진 ‘십유여년 전’ 따위가 아니라 담론이 사건에 임재해야 한다. 사건의 안에 담론이 존재하며, 형식에 의해서 파악되는 작품의 진행을 따른다. 전달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미메시스.

* 이것이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다. 했다더라 등의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이 재현되고 있다는 실감을 보여준다. 이전의 서사체들 중에 소설만큼 이렇게 생생한 감각을 주지는 못했다. (형식의 눈이 되어서 우리도 선형을 훔쳐보게 되는 것 : 매우 감각적인 필치의 서술) 실감뿐 아니라 박진감이 나타나는 것도 **서사와 담론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 서술의 시간과 사건의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실감은 살아나고 박진감도 커진다. 영채의 경우는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카메라워크 같은 실감은 나지 않는다.
* 서술 속에 인용되는 대화(영채)와 장면 속에 현존하는 대화(형식)의 차이. -> 옛날식 소설과 현대 소설의 차이로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듯.
* 인물의 내면이 그대로 제시된다. : 행동하는 주체이자 고민하고 사색하는 존재. 그래서 어지로운 사건들이 중첩되고 출몰하면서 줏대없는 인물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 내면 서술에 의해 형식은 상상의 주체가 되고 상상의 재료들인 각종 관념들은 그의 내면에서 교차한다.
* 비판: 형식 왜 이렇게 줏대가 없고 상상이 많느냐. > 장점일 수도 있다. 인간의 정신이라는 것이 일관적이지 않은데, 일관적인 캐릭터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바람직한 요청인가? 인간은 체계적이지 않고, 다층적이고 다중적이고 다면적인데. 형식은 그에 맞추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이 아닐까? 이형식이라는 캐릭터가 그 인간의 다층적인 면을 다 보여주고 있다. 내면묘사 부분은 빛나는 부분이 아닌가? 개화와 전통, 정신과 욕망, 이상과 현실 등이 계속 출몰하면서 끊임없는 중복결정이 일어나고 있다. > 더 생생한 실감인 것은 아닐까?)

3. 지양과 통합

: 85회까지 가자 원고가 다 소진되었다.

무정의 인기가 너무 대단해서 독자들이 누구를 살려라 죽여라 이렇게 관여하기 생각한다. 주인공들이 영웅들이 아니고,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형식은 영웅이 아니라 무기력한 존재였거든. 거기 독자들이 너무나 화가 난 것이다. > 매일신보까지 위태로워지자 춘원을 설득해서 영채 구하기 프로젝트를 시작. > 이제 영채의 말 좀 하자, 나 춘원 Saying.

1) 영채의 부활과 그 후일담

* ｢무정｣은 연재 85회분까지 영채와 형식으로 대표되는 두 개의 축이 서사의 구성 방식이나 담론의 작용에 있어서 대립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한다.
* 영채의 축은 ｢무정｣ 연재 86회분부터 형식의 방향으로 지양·통합된다.

> 영채를 비롯한 인물들이 형식의 서사에 종속되면서 온전한 근대소설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2) 병욱의 역할 (독자들의 성화 때문에 원래 무정의 계획이 틀어진 것은 아닌가…)

* 영채가 평양행 열차에서 만난 병욱은 그러한 지양과 통합을 수행하는 인물이다.
* 영채가 자살 계획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병욱의 주장은 기실 형식의 생각을 옮긴 것이다.
* 병욱은 형식의 대리인으로서 이른바 ‘영채의 부활’을 추진한다.

서사의 기능 면에서는 병욱이 형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영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은 정혼자의 죽음을 뒤로하고 약혼했다는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영채가 죽으면 형식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 끝내 죄인으로 남을 테니까. 그런 면에서는 기능적으로는 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형식에게 면죄부를 주게 됨.

형식의 생각은 병욱의 말과 똑같다. 병욱은 형식의 말을 대리인처럼 전해서 영채를 살리고 형식은 죄를 면하게 된다.

1. 행복-행복의 서사

: 어쨌든 형식은 선형과 행복하게 지내다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영채는 황주에서 병욱의 도움을 받아서 심신을 회복하고 유학을 가게 된다. (기차에서 영채와 병욱이 형식과 선형을 만난다)

사실 이 소설은 연애소설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소설에는 연애라고 이름붙일 사건이 나오지 않는다. 형식과 영채가 과연 근대적인 의미에서 연애의 관계인가? 아니지, 정혼의 관계지. 형식과 선형의 관계도 마찬가지. 김장로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 자유연애는 나오지 않는다. 선형이 이런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지 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본격적인 삼각관계라고 불릴 구도도 없음. 아주 표면적인 상황일 뿐. 그런 애가 있다는 정도지 미워하고 이러는 것도 안 나온다. 열차 씬 전까지는 삼각관계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세 사람이 열차 안에서 조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애 얘기가 나온 셈.

영채가 왜 형식을 포기했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사건중심의 이야기가 정말 재미없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다. 영채는 고전소설 속에서 행동하는 주체였지만, 기차 안에서 선형과 형식을 보게 된 후에 영채의 내면세계는 굉장히 복잡해진다. 선형도 영채를 보고 불 같은 질투를 느끼게 되고, 어떤 무서운 짓을 저지를 것 같고, 형식에 대해 원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처절한 후회, 불 같은 질투가 무정의 백미이고 비로소 자유연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아주 열렬한 애정갈등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 소설이 파국을 위해 치달을 것 같은 느낌. 파멸로 달려가는 열차. 열차후반의 그 폭발할 것 같은 씬은 백미와도 같다. 박에 비도 내리고. 이광수는 두려웠다. 그 열정은 한 개인, 한 작가가 처리하기는 너무 위험한 것이었다. 쓰다가 두려워져서 이광수는 파국 직전에 열정을 계몽이라는 공적 가치로 덮어버린다. (끝까지 가 보자, 가 아니었다)

이 갈등을 어설프게 봉합하는 것이 삼랑진 수해. 정말 미봉으로써 소설이 마무리지어진다. 계몽은 공적 가치, 연애는 사적 가치. 이광수는 둘을 조화시키려고 해 보지만, 둘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 절대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광수는 급히 봉합한다. 수재민 구호 음악회,에 이어서 여관 씬이 나타나고, 후일담 식으로 이어지며 소설이 엔딩.

* 영채가 병욱을 만난 이후 ｢무정｣의 서사는 ‘행복-행복’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 ｢무정｣ 후반부의 서사와 담론이 형식 중심으로 통합된다.
* ｢무정｣은 고전소설과 근대소설이 대립하다가 근대소설로 마무리되는 소설사적 전환의 과정을 그 스스로 내장한다. : 그 움직임의 과정을 소설 안에서 다 보여줬다. 영채전에서 출발해 무정으로 가는 과정을 소설 한 권 안에 다 내장해 버린 것이다. 이 소설이 어디에 속하는 것이냐, 할 때 그 속함의 과정 자체를 작품에서 보여주었다. (소설사적인 가치)
* ｢무정｣의 행복한 결말과 식민지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가로 놓인다.

: 이십대 청년의 희망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배반당했다.